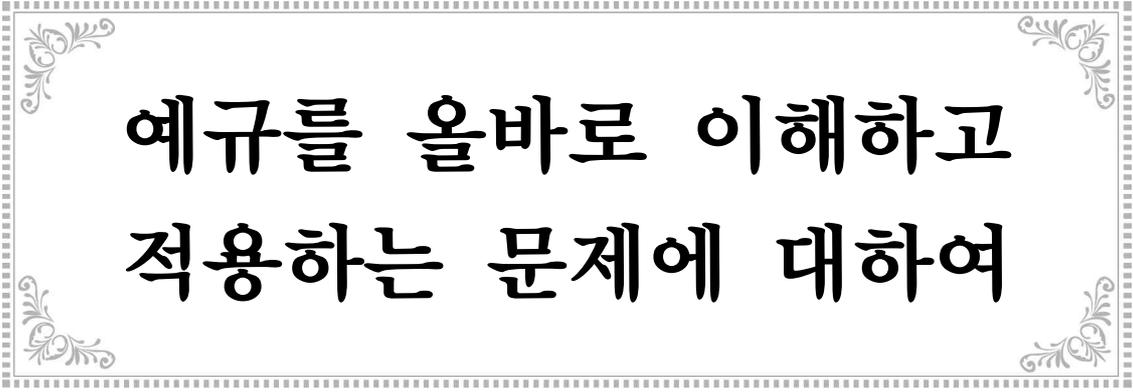


제주교구 2019년 상반기 사제·수도자·평신도 연수

올바른 미사 전례 예절

선교사목위원회



예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경민 신부

예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1. 미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인 성찬례 거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는 감사의 희생 제사를 바칩니다. 우리가 예물로 바친 빵과 포도주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해 서로 간에 또 하느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양육된 하느님 백성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2. 미사는 교회의 전례 규범이 제시하는 밑그림대로 거행됩니다. 가톨릭교회는 로마 예법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해 여러 가지 보편 규범과 지역 규범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례 문헌들을 발표하여 실제 미사 거행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전례 문헌들을 두루 살피고 종합하는 일입니다.

전례 규범의 기본 자료 : 전례 관련 교회 문헌

- 가장 기본이 되는 문헌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이하 총지침)입니다. 총지침은 미사 때 사제가 바치는 전례 기도문들이 수록된 책인 『로마 미사 경본』 (이하 미사 경본)의 서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미사 경본의 중심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미사 통상문』 (이하 통상문)은 미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낭송하거나 노래하는 부분과 예규로 이루어진 일종의 ‘미사 대본’입니다. 전통적으로 빨간색 글씨로 썼다 해서 홍주(紅註, *rubricae*)라고 불리는 예규는 전례 본문을 따라가며 주례 사제와 다른 전례 봉사자들, 신자 회중 등 여러 전례 주체들의 행위와 예식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행 지침입니다. 예규를 따른다는 것은 미사를 교회의 의향을 따라 올바르게 거행함을 뜻합니다.

3. 그밖에도 보편 교회에 두루 통용되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사 독서 목록 지침』 (이하 독서 지침)은 말씀 전례의 성경 독서에 관한 지침입니다. 『미사 독서』 I권의 앞머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는 『주교 예절서』는 다른 거행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2004년에 나온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는 미사 거행에서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어 줍니다.

4. 각국 주교회의에서 마련한 문헌들도 있습니다.

- 특히 2002년 미사 경본 총지침의 개정 출판에 따라 여러 주교회의에서 자국 교회의 실정에 맞춘 미사 거행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그 가운데 2005년 잉글랜드-웨일즈 주교회의에서 펴낸 『미사 거행』 (*Celebrating the Mass*)은 전례 규범이 전통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유연하고 사목적이며 창조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탁월한 본보기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 한국 주교회의는 2004년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이하 간추린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총지침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추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펴냈습니다. 전례위원장 이병호 주교는 서문에서 이 문헌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침에 실린 내용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전례위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또한 이 간략한 지침이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만 미사전례를 거행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관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경신성사성에서 제시하는 예규와 충돌하거나 고유의 해석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201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한국어 『복음집』 서문에는 여러 전례 예식 거행에서 『복음집』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 이러한 전례 문헌들이 미사 거행의 실질적인 지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전례 규범을 숙지하고 실제 전례에 정확히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예규가 미사를 거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전례 거행에서는 기존 예규로 포착되지 않는 지점이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에 따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전례 주체들이 매 미사에서 모든 예규를 철저히 따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그것을 교회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6. 바로 여기서 전례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두 번째 작업, 즉 예규를 실제 거행의 맥락에 비추어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미사는 기본적으로 참석자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에 잘 젖어들 수 있도록 정돈된 예규대로 거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을 품어 보고 생각해 보면서 예규와 씨름해 보지 않고서는 가톨릭교회의 전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실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도 미사는 언제나 예규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잘 짜인 패턴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3) 드리는 예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례 주체들은 지역 관습과 전례 신학, 역사적 선례, 성경에서 받은 영감, 문화적 감수성 또는 상식에 기초하여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전례 규범의 판단과 적용 기준

합법적 권위

7. 규범 해석과 적용의 첫 번째 원칙은 ‘합법적 권위의 판단’입니다. 교구 단위에서 전례 생활을 장려하고 조정하며 감독할 권한은 교구장 주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에게는 전례 거행이 전례 규범과 정신에 일치하도록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맡겨져 있습니다(총지침 387 참조). 따라서 각 교구는 미사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구는 2013년 연수 때 교구장 주교님께서 발표하신 『올바른 전례

거행을 위하여: 성주간 전례 거행에 따른 의미와 미사 전례의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전례 지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단순성

8. 두 번째 원칙은 ‘고귀한 단순성’(simplicitas nobilis)의 원칙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의 주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식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하고, 간단명료하여야 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삼가야 하며, 신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게 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34항). ‘고귀함’과 ‘단순성’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전례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이 독특한 정신은 로마 전례 특유의 성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에 관한 한 이 두 개념이 얼마나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채워주는지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단순성으로 규율되지 않은 고귀함은 피상적인 허례허식으로 흐릅니다. 고귀함이 빠진 단순성은 전례를 진부하고 불품없게 만듭니다. 로마 전례의 독특함은 전례의 위대한 본질에 초점을 맞춘 단정함 위에다 품위 있는 광채를 더할 줄 아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과 선례

9. 예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관습과 선례’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미사 전례와 이후의 미사 전례는 “봉헌 방법만 다를 뿐, 실제로 하나이며 같은 제사”(총지침 2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회 이전 관습들을 아무 기준 없이 현행 미사에 되살려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행 총지침은 옛 규범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하는 새 규범입니다. 그러나 옛 예규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거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현행 예규들은 예규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한 이들이 보기에 ‘빈틈’이 많아 전례 거행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옛 전통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교 예절서』의 각주 67은 행렬 때 초복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1886년판 주교 예절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 예법에서는 관습에 따라 “오른쪽에서 걷는 시종은 오른손에 촛대를 들고 걷는데, 왼손으로는 촛대 아래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촛대의 중간 손잡이를 잡는다. 왼쪽에서 걷는 시종은 오른손으로 촛대 아래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중간 손잡이를 잡는다.”

이와 같은 관습들은 현행 전례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오늘날에도 유용한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식 거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보다는 실제 거행에서 보고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지침 밖에서 전해지는 관습의 영향을 늘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교구 내 본당들이나 다른 교구의 거행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지침은 주교, 사제, 부제, 시종, 독서자에 대한 폭넓은 지침들을 제공하면서도 (어린이 또는 성인) 복사가 정확히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본당은 복사를 두고 있지만, 복사의 임무는 지역 교회의 필요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본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복사의 역할, 나이, 훈련에 관해서는 지역의 전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신학적 사고

11. 다음은 ‘신학적 사고’의 원칙입니다. 예규는 크게 의무 규정, 권고 규정, 선택 규정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 규정에만 반응하고 권고 규정은 자주 무시하며 선택 규정은 건너뛴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제력을 지닌 규범들을 싸잡아 피곤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례 문헌 곳곳에 전개된 신학적 가치들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례를 더욱 빛나게 해 줍니다. 전례 신학은 특히 상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양형 영성체는 사목 환경에 따른 선택 사항이지만 신학적 무게가 작지 않은 중요한 전례적 표지입니다.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 양형을 할 때에 표지로서 더 충만한 형태를 지닌다. 양형 영성체로 성찬 잔치의 표지가 한층 더 완전하게 드러나고, 하느님의 뜻

에 따라 새롭게 영원한 계약이 주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이 표현되며, 성찬 잔치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질 종말 잔치의 관계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281).

따라서 연중 사목 계획 속에 양형 영성체의 기회를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지만 그만큼 전례의 생명력은 쪼그라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2. 『로마 미사 경본』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신학적 사고의 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약식 미사 경본에는 없었던 감사 기도를 비롯한 각종 전례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되어 나오는 전례서의 일러두기를 잘 숙지하고 알맞게 이용한다면 예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사목적 필요

13. 마지막 예규의 판단 기준은 ‘사목적 필요’입니다. 예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총지침 자체도 특정한 전례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고 미사 전례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게다가 전례법은 본래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예규도 실제 효력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식 규정에 따르면 성목요일 발 씻김 예식 대상자들은 2015년에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오로지 남성들 가운데서만 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본당은 이미 한참 전에 사목적 필요에 의해서 남녀노소를 골고루 섞어 발 씻김 예식 대상자들을 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 전례 헌장 11항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효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신자들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위해 예규는 사목에 잠시 자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사목의 이름으로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사목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규범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창조적이고 사목적 필요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전례를 거행할 수 있을까’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절과 상식

15. 그밖에도 전례 규범에 관한 어떤 판단들은 일반 예절과 상식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주교 예절서 71항은 성당에 들어올 때의 예절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모든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공경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당을 나갈 때의 예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따라 나갈 때도 당연히 성체께 공경을 드립니다.

실제 전례 거행에 도움을 주는 자료

16. 사실 전례 감각이 잘 훈련되어 있고 건강한 신학적 인식이 자리 잡은 공동체는 기초적인 원칙들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유익한 관습과 전통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특징짓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촉진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17.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위에서 말한 판단 기준을 잘 적용하여 만든 전례 안내서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로 된 실용적인 전례 안내서는 권장해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각 교구나 본당에서 자체 제작한 지침서도 있지만 분량이나 정확도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외국어 서적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18. 제주 교구 미사 거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참조한 교회의 공식 문헌들과 기타 참고 문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I. 교황-경신성사성 지침

-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018. (이하 총지침)
- 『미사 독서 목록 지침』, 2018. (이하 독서지침)
- *Caeremoniale Episcoporum*, 1984. (이하 주교 예절서)
- 『구원의 성사: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에 관한 훈령』, 교황청 경신성사성, 2004. (이하 구원의 성사)

II.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

-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2004.
(이하 간추린 지침)
-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2017.

III. 외국주교회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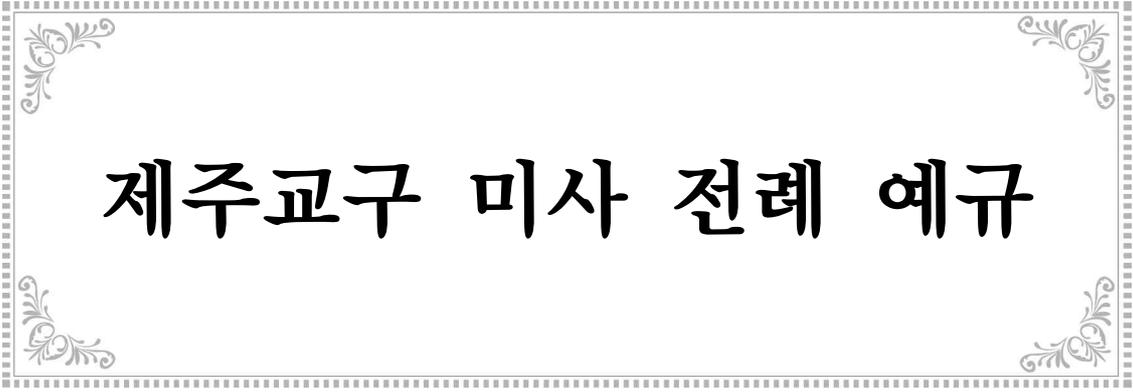
- 미국 주교회의 미사 지침: *Instruction to the Order of Mass: A Pastoral Resource of the committee on Divine Worship*, 2009.
- 미국 주교회의 성음악 지침: *Sing to the Lord: Music in Divine Worship*, 2007.
- 잉글랜드-웨일즈 주교회의 미사 지침: *Celebrating the Mass: A Pastoral Instruction*, 잉글랜드-웨일즈 주교회의, 2005.
- 캐나다 주교회의 미사 지침: *Pastoral Notes for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in Light of the Revised Roman Missal*, 2012.

IV. 제주 교구 지침

- 『올바른 전례 거행을 위하여: 성주간 전례 거행에 따른 의미와 미사 전례의 이해』, 강우일 주교, 2013. (이하 교구장 지침)

V. 해설서

- *A Commentary on the General Instruction of the Roman Missal*, ed. Edward Foley, Nathan D. Mitchell, Joanne M. Pierce, 2007.
- *A Commentary on the Order of Mass of The Roman Missal: A New English Translation*, ed. Edward Foley, 2011.
- *Let Us Pray: A Guide to the Rubrics of Sunday Mass*, Paul Turner, 2012.
- *Ceremonies of The Modern Roman Rite: The Eucharist and the Liturgy of the Hours*, Bishop Peter J. Elliott, 2005.



제주교구 미사 전례 예규

김경민 신부

시작 예식

김경민 신부

입당

1.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와 봉사자들은 전례복을 입고 아래의 순서로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총지침 120).

- ① (향을 쓸 경우에) 향을 피운 향로를 든 향로 복사.¹⁾
- ② 불 켜진 초를 들고 가는 복사들. 이들 사이에 십자가를 들고 가는 복사.²⁾
- ③ 다른 봉사자들.³⁾
- ④ 독서자.⁴⁾
- ⑤ 『복음집』을 조금 위로 올려 든 부제.⁵⁾
- ⑥ 미사를 거행할 사제.

2. 행렬이 제대로 향하는 동안 입당 노래를 부른다(총지침 47항 참조).

- 입당 노래는 충분히 불러 전례 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한국 성음악 지침 48). 따라서 입당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미사 전례의 시작성가는 끝까지, 아니면 적어도 2-3절까지 충분히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간추린 지침 '입당행렬과 입당송').
- 사제의 행렬이 끝나면 새로운 절을 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분향이 이어질 때는 분향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한다(한국 성음악 지침 48).
-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

1) 사제는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향로에 향을 넣고, 아무 말 없이 십자 표시로 축복한다.

2) 제단으로 이어지는 중앙 통로가 세 사람이 가로로 서서 걸어가기에 충분히 넓지 않을 때에는 초를 든 봉사자가 십자가 뒤에서 걸어간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앞으로 향하게 든다(주교 예절서 128).

3) 경우에 따라 보편 지향 기도 봉사자 또는 화답송 선창자도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교구장 지침).

4) 부제가 없을 때 독서자는 『미사 독서』가 아닌 『복음집』을 조금 위로 올려 들고 갈 수 있다(총지침 120 r). 행렬 때 『복음집』을 들고 가지 않으면 미사 전에 미리 제대 위에 놓아 둘 수 있다.

5) 『복음집』을 들고 가지 않을 때에는 사제 옆에서 걷는다(총지침 172).

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직접 낭송한다. 이 경우 사제는 입당송을 시작 예식에서 하는 권고의 말로 삼을 수 있다(총지침 48).

3. 제대 앞에 이르러 봉사자들은 순서에 따라 제대에 깊은 절을 한 다음 제 자리로 간다(총지침 49, 122; 주교 예절서 130).

- 행렬용 십자가나 촛불, 향로를 들고 가는 봉사자들은 고개만 숙여 인사한다(총지침 274).
- 『복음집』을 든 부제 또는 독서자는 제대 앞에 이르러 경의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제대에 다가가서, 『복음집』을 제대 위에 잘 모셔 놓는다(총지침 173, 195). 독서자가 『복음집』을 들고 왔으면 제대 위에 모신 뒤 깊은 절을 하고 제 자리로 간다.
- 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는 제대 십자가로서 제대 옆에 세워 둘 수 있다(총지침 122, 188).

4. 주례 사제, 부제, 다른 봉사자들은 제단에 자리를 잡는다(총지침 294). 부제석은 주례석 곁에 마련한다. 다른 봉사자들을 위한 좌석은 성직자석과는 분명히 구분되면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총지침 310).⁶⁾ 독서자와 시편 선창자를 위한 자리도 제단 안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구장 지침).

5. 제대 앞에 이르러 사제는 제대에 깊은 절을 한 다음, 제대에 가까이 다가가 깊은 절을 한다(총지침 49, 123, 173). 부제가 『복음집』을 들고 왔으면 『복음집』을 제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사제를 기다렸다가 함께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

6) 「총지침」은 독서자도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제단 안에 제 자리가 있는 상황을 기본으로 삼는다(195). 그러나 이는 주교에게 독서직을 수여받은 정규 독서자(lector)에 해당되는 것이고, 본당의 일반 평신도 독서자들은 상황에 맞게 제단 안이나 평신도석에 자리를 마련한다. 다른 봉사자들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6. 경우에 따라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한다(총지침 49, 123, 276 L).⁷⁾ 시작 예식의 분향 예절은 다음과 같다(총지침 277).

- 제대 분향 전에 따로 깊은 절을 하지 않는다. 분향 후에도 절하지 않는다.
- 제대 위나 곁에 있는 십자가에는 제대보다 먼저 분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가 십자가 앞을 지나갈 때 분향한다. 십자가에는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서 세 번 분향하고,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한다.
- 제대에 분향할 때에는 제대를 한 바퀴 돌면서 향로를 한 번씩 흔들어서 분향한다.
-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전시된 성인들의 유해와 성화상이 있으면 시작할 때에 제대 분향 다음에만 분향하는데,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서 두 번 분향한다.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한다.

7. 제대 인사 또는 분향을 마치고 사제는 주례석으로 간다. 입당 노래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모두 선 채로 십자 성호를 긋는다.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며, 교우들은 “아멘.” 하고 응답한다(총지침 50, 124).

인사 (총지침 124)

8. 그다음에 사제는 교우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제시된 양식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인사한다. 사제가 직접 또는 다른 봉사자가 그날 미사에 대하여 아주 짧은 말로 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참회 (총지침 51)

9. 그다음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참회하도록 권고한다. 이 참회 예식은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 뒤 공동체 전체가 고백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가 하는 사죄경으로 끝난다.

- 참회 예식을 이끄는 초대말은 전례문의 성격상 사제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⁸⁾

7) 입당 행렬 직전에 향을 넣고 축복했으면 여기서 이를 반복할 필요 없이 향로 복사가 사제에게 다가가 향로를 건네주면 된다.

- 미사 경본은 세 가지 참회 예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례 시기와 축제일, 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양식(“전능하신 하느님과”)은 특히 사순시기에 알맞다. 둘째 양식(“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은 특히 연중 평일과 주일에 알맞다. 자비송과 결합되어 있고, 그 날의 전례나 축일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셋째 양식은 특히 대림, 성탄, 부활, 연중 시기에 알맞다.⁹⁾
- 셋째 양식으로 바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질러진 죄악, 사회적인 죄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마무리로 ‘주님, 저희 죄를 용서 하소서!’ 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끝낼 수도 있다. 이 후렴을 노래로 봉헌하여도 좋을 것이다(교구장 지침).
-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통상적인 참회 예식 대신에, 경우에 따라 세례를 기념하는 성수 예식을 할 수 있다. 이 성수 예식은 시작 예식의 참회와 자비송을 대신하므로, 성수 예식에 이어서 대영광송을 바치거나,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본기도를 바친다.

자비송

10. 참회 예식에서 자비송을 바치지 않았으면, 참회 예식 다음에 언제나 자비송을 바친다. 자비송은 교우들과 성가대 또는 교우들과 선창자가 한 부분씩 맡아 교대로 바친다(총지침 52).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례자와 교우들이 교대로 바친다(한국 성음악 지침 49).

대영광송 (총지침 53)

11.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8) 감사 기도에 관한 경신성성 회람(1973.4.27.) 14항 참조.

9)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England and Wales, *Celebrating the Mass: A Pastoral Introduction*, April 2005, n.145.

-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성을 드러내려면 성가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하지만, 전례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중이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간추린 지침 '대영광송').

본기도 (총지침 54, 127)

12. 이어서 사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하고 말하며 교우들을 기도에 초대한다. 그리고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청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본기도를 바친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또는 다른 말로 기도를 끝맺을 때에 손을 모은다(주교 예절서 136).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으로 환호하여,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말씀 전례

13. 본기도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는다. 사제는 아주 간단한 말로 신자들에게 말씀 전례를 설명할 수 있다(총지침 128). 이러한 권고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독서 본문에 충실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어야 하고, 여러모로 본문을 소개하는 데 잘 어울리도록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총지침 31; 독서 지침 15).
14. 말씀 전례는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거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회중에게 맞는 짧은 침묵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독서와 둘째 독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은 다음에 알맞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총지침 56).

성경 독서

15. 기록되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으로 하느님 백성은 지금도 당신 백성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¹⁰⁾ 따라서 미사 거행에서 성경 독서와 성경에서 따온 노래들은 생략하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어떤 사유로든 결코 성경이 아닌 다른 독서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총지침 57; 독서 지침 11).
16.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독서들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해야 한다(총지침 58, 309; 독서 지침 16).
 - 독서는 반드시 『미사 독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하느님 말씀의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 더 큰 커버를 만들어서 써도 좋다. 「매일 미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교구장 지침).
17. 전례 전통에 따라 미사 거행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임무는 독서자와 부제와 같은 정해진 봉사자가 맡는다(독서 지침 49). 더 높은 등급의 봉사자가

10) 그러므로 “회중이 모두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옳지 않다”(간추린 지침 ‘성서 봉독’).

있어도 독서자에게는 성찬례 거행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임무가 있다(독서 지침 51). 그러므로 독서자가 독서를 하고, 부제, 또는 주례자가 아닌 다른 사제가 복음을 선포한다(총지침 59).

- 되도록 많은 신자가 독서에 임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항상 하는 사람들만 시키지 않도록 한다. 몇 주 전에 미리 선정하여 충분히 (외울 정도로) 사전 독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독서 요령을 미리 지도하는 봉사자가 있으면 좋다(교구장 지침).

첫째 독서

18. 첫째 독서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다음과 같다.

- 본기도를 마치면 독서자는 (자리가 제단 밖에 있으면) 제단에 오르기 전에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한 다음,¹¹⁾ 독서대로 가서 미사 전에 미리 놓아 둔 『미사 독서』에서 그날의 독서 본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다.¹²⁾ 주례 사제와 교우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들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하다면 짧게 침묵한다.
- 그다음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누구나 알아듣게 말씀을 선포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이 독서를 통하여 회중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게 한다(독서 지침 14).
- 본문을 다 읽은 독서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주님의 말씀입니다.”하고 환호한다.¹³⁾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하고 응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중은 들은 하느님 말씀에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예를 드린다. 독서를 마치면서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독서를 선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노래로 할 수 있다(독서 지침 18).
- 독서를 마친 독서자는 제단 아래로 내려와 다시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이어서 모든 이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주교 예절서 138).¹⁴⁾

11) 『주교 예절서』 72항: “제단에 드나들 때나 제대 앞을 지날 때는 모두 깊은 절을 한다.” 독서자의 자리가 이미 제단 안에 있으면 제대에 절을 하지 않고 바로 독서대로 간다.

12) 예를 들어 마이크의 높낮이, 마이크와 독서자와의 거리를 알맞게 조절한다.

13) 본문과 환호 사이 간격은 약 5초 정도가 적당하다(교구장 지침).

14) 말씀 전례 때 침묵의 길이는 모든 미사에서 적어도 1분으로 한다(교구장 지침).

화답송

19. 첫째 독서 끝에는 화답송이 뒤따른다. 화답송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준다. 화답송은 노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독서 지침 20). 아니면 적어도 교우들이 말하는 후렴 부분은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총지침 61). 시편 전체를 또는 후렴만이라도 노래로 하는 방식은 시편의 영적 의미를 깊게 하며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독서 지침 21).
20. 화답송을 노래하는 방법은 양편으로 나누어 부르는 방법과 편을 나누지 않고 내리 부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되도록 교송(시편 담당자나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부르고 회중은 후렴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독서 지침 20).
21. 화답송을 노래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욱 어울리는 방법으로 낭송한다(독서 지침 22). 화답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시편 담당자 또는 선창자는 독서대에서 한다(총지침 309; 독서 지침 22).
22. 시편 선창자가 독서대로 나아가는 예절은 독서자와 같다.

둘째 독서

23. 둘째 독서도 독서대에서 선포한다. 기본 예절은 첫째 독서자와 같다. 그러나 화답송과 둘째 독서 사이에는 별도의 침묵이 필요하지 않다(독서 지침 28). 둘째 독서가 끝난 다음에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24. 『복음집』을 사용하는 미사에서는 복음 전 마지막 독서를 읽은 독서자가 『미사 독서』를 덮어 독서대 하단의 선반이나 주수상 또는 다른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복음집』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둔다.

부속가

25. 부속가는 본디 알렐루야에 따라오는 노래였지만, 지금은 알렐루야를 하기 전에 앉아서 노래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는 부

속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하는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총지침 64; 한국 성음악 지침 53).

복음 환호송

26.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른다. 복음 환호송은 모두 일어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오는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한다(총지침 62).

복음

27. 복음 봉독은 말씀 전례의 정점이다. 회중은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른 독서들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한다(독서 지침 13).

- 부제 또는 다른 공동 집전 사제가 없을 때에는 주례 사제가 직접 복음을 선포한다(총지침 59; 독서 지침 49). 사제는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르는 동안 향을 넣고 축복한다. 이어서 손을 모으고 제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를 바친다. 그 다음에 『복음집』이 제대 위에 있으면 사제는 『복음집』을 조금 위로 올려 들고 독서대로 간다(총지침 132).
- 향로 봉사자는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다른 봉사자들은 촛불을 켜 들고 앞장을 선다(총지침 175). 참석자들은 독서대를 향하여 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별한 공경을 표시한다(총지침 133).
- 독서대에서 부제 또는 사제는 책을 펼친 다음 손을 모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한다.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부제(사제)가 “()가(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하고 말하며 엄지로 책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한다. 다른 모든 이도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한다. 교우들은 “주님, 영광받으소서.”하고 환호한다.
- 이어서 책에 향로를 두어 번씩 세 번 흔들어 분향한 다음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입니다.”하고 환호하면 모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하고 응답한다. 부제(사제)는 책에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을 하며 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를 바친다(총지침 134, 175; 독서 지침 17).

- 마지막으로, 『복음집』은 주수상이나 알맞고 품위 있는 다른 곳에 모셔 둘 수 있다(총지침 175).

강론

28. 사제는 주례석이나 독서대에서 또는 필요할 때는 다른 알맞은 곳에 서서 강론을 한다(총지침 136).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다른 날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총지침 65, 66).

-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한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총지침 66).
- 강론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총지침 65). 그리고 잘 준비하여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으며, 모든 참석자가, 어린 아이나 못 배운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독서 지침 24).
- 교우들에게 알려야 할 짧은 공지가 있다면, 이는 강론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공지 사항은 반드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알린다(독서 지침 27).
- 강론 다음에는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총지침 66).

신앙 고백

29. 주일과 대축일에는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신경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다(총지침 68). 이때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신에 사도 신경을 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신경은 회중이 교대로 또는 회중이 함께 노래하거나 낭송한다(간추린 지침 '신경').

보편 지향 기도

30. 그다음에 보편 지향 기도 곧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도로 거룩한 교회, 위정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해야 한다(총지침 69).

- 기도 지향은 보통 ① 교회, ②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③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④ 지역 공동체의 순서를 따르지만, 상황에 더 어울리게 바꿀 수 있다(총지침 70). 기도 지향은 간단명료해야 하고, 신중하면서도 자유롭게 준비한다. 또 공동체 전체의 청원을 드러내야 한다(총지침 71).
- 「매일 미사」에 수록되어 있는 지향을 그대로 읽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신자들이 스스로 현실 속에서 간절히 하느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교구장 지침).
-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의 지향을 알린다. 기도 지향도 반드시 네 개일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이 되어도 무방하다(교구장 지침).
- 사제는 주례석에 서서 손을 모으고 짧은 권고로 신자들을 보편 지향 기도에 초대한다. 그다음에 부제나 선창자, 또는 독서자나 다른 평신도가 독서대에서 교우들을 보고 기도 지향을 말한다(총지침 71, 138).
- 봉사자가 각 지향을 말한 다음 다 함께 환호로 공동 청원을 드러내거나 침묵으로 기도에 참여한다(총지침 71).
-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맺음 기도로 이 청원을 마친다(총지침 138).
- 주례자가 맺음 기도를 바치는 동안 기도 지향을 발표했던 이는 주례자를 향해 돌아서고, “아멘”까지 모두 끝난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성찬 전례

제대안 예물 준비

31. 보편 지향 기도가 끝나면, 봉헌 노래를 시작한다(통상문 21).

- 봉헌 노래는 적어도 예물을 제대 위에 차려 놓을 때까지 계속하는데, 분향이 이어질 때에는 분향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한다.
- 예물 행렬이 없는 경우에도 예물 준비 예식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한국 성음악 지침 57; 총지침 74).
-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르간 또는 지역 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한국 성음악 지침 57).

32. 먼저 성찬 전례 전체의 중심이며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한다. 곧 성체포, 성작 수건, 미사 경본과 성작을 제대에 펼쳐 놓는다. 성작은 주수상에 놓아둘 수 있다(총지침 73).

33. 그다음에 예물을 제대에 나른다.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총지침 73). 성당 입구에서 행렬하여 예물을 봉헌할 때에는 ‘보편 지향 기도’를 다 마친 다음, 행렬을 시작한다(간추린 지침 ‘예물 준비’). 사제나 부제는 알맞은 곳에서 이 예물을 받아 제대로 옮긴다. 금전이나 신자들이 가져온 다른 예물은 성찬의 식탁이 아닌, 다른 알맞은 곳에 놓아둔다(총지침 73).

34. 사제는 제대에서, 빵이 담긴 성반을 두 손으로 제대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속으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를 바친다. 그다음에 빵이 담긴 성반을 성체포 위에 내려놓는다(총지침 141).

35. 이어서 사제는 제대 옆에 서서, 봉사자가 주는 주수병을 받아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속으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를 바친다. 제대 가운데로 돌아와 성작을 두 손으로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속으로

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를 바친다. 그다음에 성작을 성체포 위에 내려놓고 경우에 따라 성작 덮개로 덮는다(총지침 142). 부제가 있는 미사에서는 부제가 거룩한 그릇을 다루는 일을 맡아 사제를 돕는다(총지침 178).

36. 봉헌 노래를 하지 않거나 오르간 연주가 없을 때에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예물 준비 기도를 바친다. 교우들은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하고 환호한다(총지침 142). 아니면 주례 사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통상문 23-25).
37. 성작을 제대 위에 내려놓은 뒤,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을 바친다(총지침 143).
38. 그다음에 향을 쓸 경우 사제는 향로에 향을 넣고 말없이 축복한 다음, 예물에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 세 번 분향하거나 예물 위에 향로로 십자 표시를 한다. 미사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준비된 예물에는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한다(총지침 144, 277).¹⁵⁾ 이어서 봉사자는 제대 옆에 서서 사제에게 분향하고 이어서 교우들에게도 분향한다(총지침 144).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한다(총지침 277).
39. 사제는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을 바친 다음이나 분향한 다음에 제대 옆에 서서 봉사자가 부어 주는 물로 손을 씻으며 속으로 “주님, 제 허물을”을 바친다(총지침 145). 사제는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조금 숙여 봉사자에게 인사한다.
40. 그다음에 사제는 제대 가운데로 돌아와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하고 말하며 교우들을 기도에 초대한다. 교우들은 일어서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하고 응답한다.¹⁶⁾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고 예물 기도를 바친다. 기도가 끝나면 교

15)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하는 예절은 입당 예식 때와 같다.

16) 한국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는 “신자들은 … 예물 기도 앞의 ‘형제 여러분, …… 기도합시다.’ 하는 초대의 말 다음부터 미사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43항)고 나와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 따르면 ‘초대의 말부터’(ab invitatione, from the invitation) 일어난다. 한국어 미사 통상문의 해당 부분(29항)에 “교우들은 일어서서 응답한다.”는 예규를 삽입하면서 총지침도 이에 맞춰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들은 “아멘.”하고 환호한다(총지침 146).

감사 기도

41. 그다음에 사제는 감사 기도를 시작한다. 예식 규정에 따라, 『로마 미사 경본』에 들어 있거나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총지침 147). 감사 기도를 고를 때는 아래 규범을 따른다(총지침 365).

- 감사 기도 제1양식, 곧 로마 전문은 언제나 쓸 수 있지만 고유 성인 기도와 고유 Hanc igitur가 제시되어 있는 미사, 그리고 이 감사 기도에 이름이 나오는 사도들과 성인들의 축일 때 바치면 더욱 좋다. 또한 사목적 이유로 감사 기도 제3양식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주일에도 제1양식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같이 중요하고 성대한 축일에는 1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교구장 지침).
- 감사 기도 제2양식은 그 특성으로 보아, 주간 평일과 특별한 환경에서 쓰면 좋다. 이 감사 기도에는 고유 감사송이 붙어 있지만 다른 감사송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더구나 공통 감사송과 같이 구원의 신비를 종합하여 표현하는 감사송과 같이 쓸 수 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거행할 때는 지정된 곳, 곧 “부활의 희망 속에” 전에 특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¹⁷⁾
- 감사 기도 제3양식은 어떠한 감사송과도 함께 쓸 수 있으며, 주일과 축일에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감사 기도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 쓸 때는 지정된 곳, 곧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다음에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감사 기도 제4양식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다른 감사송과 바꿀 수 없는 고유 감사송을 가지고 있다. 고유 감사송이 없는 미사와 연중 주일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감사 기도에는 그 구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문은 넣을 수 없다.
- 두 개의 화해 감사 기도는 1975년 대회년을 맞아 작성된 기도문이다. 이 감사 기도에는 고유 감사송이 붙어 있지만, 참회나 화해와 관련된 다른 감사송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 감사 기도는 사순 시기 또는 그날의 독서나 전례문에서 화해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미사에 쓰는 것이 좋다.

17) 제주 교구에서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예물이 적용되는 이의 이름을 신자인 경우에 한하여 부를 수 있다(교구장 지침).

- 기원 미사 감사 기도는 원래 1974년 스위스 주교회의에서 경신성성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도문이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로마 미사 경본』의 제3판(2002년)에 정식으로 수록되었다. 현재 기원 미사 감사기도는 감사송과 전구 부분에 변화를 주어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총 네 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제는 팔을 벌리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노래하거나 말하고,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하고 응답한다. 사제가 손을 올리며 “마음을 드높이.” 할 때, 교우들은 “주님께 올립니다.”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고 감사송을 계속한다. 감사송이 끝나면 손을 모으고 모든 이와 함께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거나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다(총지침 148).

43. 감사 기도 동안 부제는 사제 곁 조금 뒤쪽에 서서 필요할 때 성작과 미사 경본 시종을 든다(총지침 179).

44. 사제는 계속하여 감사 기도 각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예식 규정에 따라 감사 기도를 바친다(총지침 149).

- 감사 기도의 일부분을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 또는 신자 개개인이나 모든 신자가 다 함께 바치도록 제의하는 것은 남용이다. 감사 기도는 온전히 사제 혼자서만 바쳐야 한다(총지침 147; 구원의 성사 52).
- 사제가 감사 기도를 바치는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노래를 하거나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 말아야 한다(총지침 32; 구원의 성사 53).
- 감사 기도 가운데 신자들이 하도록 정해진 부분은 감사송 대화 부분의 화답, 거룩하시도다, 축성 다음의 환호(신앙의 신비여), 마침 영광송 뒤의 아멘 환호이다(총지침 147).
- 필요에 따라 봉사자는 축성 바로 전에 종소리로 신자들에게 신호를 한다. 마찬가지로 성체와 성작을 높이 들어 보일 때 그 지역 관습에 따라 종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두고 깊은 절을 할 때에는 종을 치지 않는다.
- 향을 쓸 경우, 사제가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교우들에게 높이 들어 보일 때

봉사자는 향로를 두어 번씩 세 번 흔들며 분향한다.

45. 예식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감사 기도에 추가되는 전례문을 확인하여 적절한 때에 바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⁸⁾
46. 사제는 감사 기도 끝에 성체가 담긴 성반과 성혈이 담긴 성작을 받들어 올리고 홀로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바친다. 교우들은 끝에 “아멘.”으로 환호한다. 그다음에 사제는 성반과 성작을 성체포 위에 내려 놓는다(총지침 151).

영성체 예식

47. 감사 기도를 마친 다음 사제는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 전에 권고를 한다. 이어서 팔을 벌리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총지침 152).
48.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팔을 벌린 채 혼자서 후속 기도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를 바친다. 교우들은 기도 끝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로 환호한다(총지침 153).
49.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를 바친다. 이 기도가 끝난 뒤에 사제는 팔을 벌렸다가 모으면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하며 평화의 인사를 전한다.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하고 응답한다. 그다음에 따라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하고 덧붙인다(총지침 154).
 - 사제는 봉사자에게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때 거행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사제는 언제나 제단에 머문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신자 몇 사람과도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총지침 154).
50. 그리고 나서 사제는 축성된 빵을 들어 성반 위에서 쪼개고, 작은 조각을 떼어 성작 안에 넣으며 속으로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를 바친다. 그동안 성가대와 교우들은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총지침 155).

18) 『로마 미사 경본』에 수록된 예식 미사의 추가 전례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세례 거행(p.1067-1068), 견진 거행(p.1071), 서품(p.1079-1113), 혼인(p.1115-1116).

- 성체를 쪼갠 다음 사제의 손가락에 성체 부스러기가 붙어 있을 때에는 (성작이 아니라) 성반 위에서 손가락을 닦는다(총지침 278).

51. 그다음에 사제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영성체 전 기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을 바친다(총지침 156).

52.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깊은 절을 한 다음,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성반이나 성작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교우들을 향하여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을 말한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주님, 제 안에 주님을”을 바친다(총지침 157).

53. 이어서 사제는 제대를 향하여 서서 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 주시어”를 바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건하게 모신다. 이어서 성작을 잡고 속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 주시어”를 바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경건하게 모신다(총지침 158).

54.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총지침 86, 159). 이 때 종을 울려 신호할 필요는 없다. 참석자 수가 부족하여 영성체 행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성체송을 합송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성체를 모신 다음에 찬양의 마음을 담은 영성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

55. 그다음에 사제는 성반 또는 성합을 들고, 영성체하러 관례대로 행렬을 지어 나오는 이들에게 다가간다(총지침 160).

- 신자들이 직접 축성된 빵과 거룩한 잔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영성체한다. 서서 영성체를 할 때는 성체 앞에서, 양형 영성체를 할 때에는 귀중한 성혈을 모시기 전에도, 공경을 표시하는 동작으로 저마다 정중하게 절하고 봉사자에게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

56. 성체만으로 영성체하는 경우 사제는 축성된 빵을 조금 들어 올려 각 사람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하고 말한다. 영성체하는 이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입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손으로 모신다. 영성체 하는 이는 축성된 빵을 받은 다음 곧바로 다 먹어야 한다(총지침 161).

57. 양형 영성체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총지침 284-287).

- 일반적으로 부제가 성작을 든다. 부제가 없을 때는 사제나 정식으로 직무를 받은 시종 또는 다른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든다. 필요한 경우 이 임무를 그 때만 신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 성체를 성혈에 적셔서 입에 넣어 주거나,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게 할 수 있다.
- 축성된 빵을 성혈에 적셔서 모실 경우에는 사제가 축성된 빵을 집어 한 부분을 성작의 성혈에 적신 다음 그것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하고 말한다. 영성체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응답하고 사제에게서 성체와 성혈을 입으로 모신 다음 물러난다.
-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는 경우에는 영성체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다음에 성작 봉사자에게 가서 그 앞에 선다.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피.”하고 말하고 영성체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봉사자가 성작을 건네주면 영성체하는 사람은 두 손으로 성작을 잡아 입에 대고 조금 마신다. 그다음에 성작을 봉사자에게 돌려 주고 물러난다. 봉사자는 성작 수건으로 성작 가장자리를 닦는다.
- 영성체하는 이는 직접 제병을 성작에 넣어 적셔서도, 포도주에 적신 제병을 손으로 받아 모셔서도 안 된다(구원의 성사 104).
- 성혈이 남으면 사제나 부제 또는 정식으로 직무를 받아 성작을 든 시종이 제대에서 모신다. 그다음에 보통 하던 대로 거룩한 그릇을 씻고 닦아 정돈한다.

58. 성체를 분배할 때 다른 사제들이 있다면 집전 사제를 도와줄 수 있다. 사제들이 충분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이들이 많을 때 사제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 곧 정식으로 직무를 받은 시종이나 이를 위하여 규정된 예식에 따라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다른 신자들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제는 알맞은 신자들에게 그때에만 임시로 성체 분배를 위임할 수 있다(총지침 162).¹⁹⁾

19) 『로마 미사 경본』, 부록 III, “성체 분배 임시 위임 예식”, p.1363 참조.

-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은 사제가 영성체하기 전에 제대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또 언제나 집전 사제의 손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나 성혈이 담긴 그릇을 받아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한다.
- 사제는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로마 미사 경본』에 규정된 때에 제대에서 영성체하여야 하고, 공동 집전 사제들은 성체 분배를 하기 전에 영성체하여야 한다. 집전 사제나 공동 집전 사제는 신자들의 영성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체를 받아 모셔서는 절대 안 된다(구원의 성사 97).
- 공동 집전 사제들의 영성체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따라야 하고, 언제나 같은 미사에서 축성된 제병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공동 집전 사제가 언제나 양형 영성체를 하여야 한다(구원의 성사 98).

59. 성체 분배가 끝나면 사제는 남은 성혈을 제대에서 곧바로 모두 모신다. 남은 성체는 사제가 제대에서 모시거나 성체를 보관하는 곳으로 옮겨 간다. 사제는 제대로 돌아와 부스러진 성체 조각이 남아 있으면 모은다. 그다음 제대나 주수상에 서서 성반이나 성합을 성작 위에서 깨끗이 닦고 성작을 씻는다. 이때 속으로 “주님, 저희가 모신”을 바친다. 이어서 성작 수건으로 성작을 닦는다. 제대에서 거룩한 그릇들을 깨끗이 씻으면 봉사자가 주수상으로 가져간다. 씻을 그릇은, 특히 많을 때에는, 주수상이나 다른 탁자, 또는 제의실로 옮겨 성체포 위에 놓고 잘 덮어 두었다가 미사가 끝난 뒤 교우들을 파견한 다음 곧바로 씻을 수 있다(총지침 163; 교구장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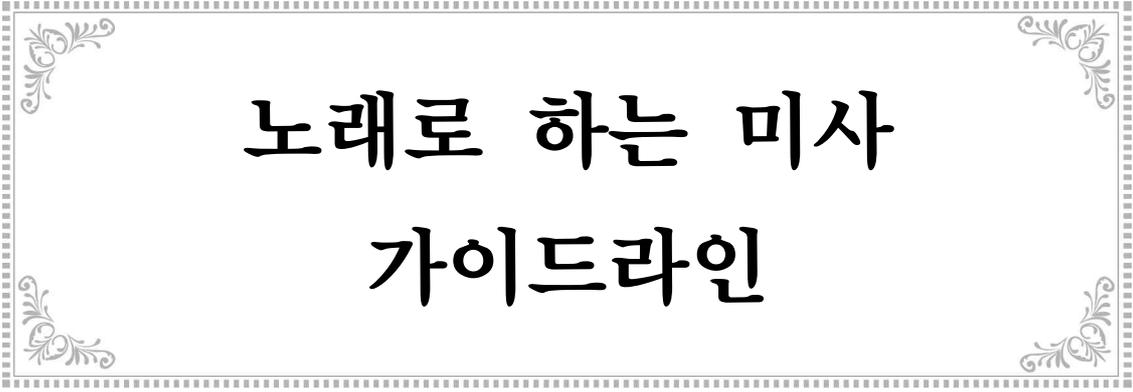
- 성체나 그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경건히 줍는다. 성혈을 바닥에 흘렸으면 그 자리를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물은 나중에 제의실에 마련된 세정대에 버린다(총지침 154).

60. 그릇을 씻은 다음에 사제는 주례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잠깐 거룩한 침묵을 지키거나 시편 또는 다른 찬양 노래나 찬미가를 부를 수 있다(총지침 164).

61. 그다음에 사제는 제대나 주례석에 서서 교우들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하고 말한다. 영성체 바로 뒤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어서 팔을 벌리고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하고 환호한다(총지침 165).

마침 예식

62.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필요에 따라 교우들에게 공지 사항을 짚막하게 알린다.
63.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며,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로 인사하고,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사제는 다시 손을 모았다가 곧바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하고 말하고, 교우들을 향하여 십자표시를 하면서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한다. 모두 “아멘.”하고 응답한다(총지침 167).
64. 사제는 강복 다음에 곧바로 손을 모으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와 같은 알맞은 말로 파견한다.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하고 응답한다(총지침 168).
65. 그다음에 사제는 관례대로 제대에 깊은 절로 경의를 표시한다. 이어서 평신도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 앞에서 깊은 절을 한 다음, 그들과 함께 물러간다.



노래로 하는 미사 가이드라인

김경민 신부

미사 전례 성가의 단계별 적용

1. 전례 회중과 봉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미사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전례문을 반드시 모두 노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노래할 부분을 고를 때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골라 노래합니다(총지침 40).
2.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노래 미사를 좀 더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교우들과 성가대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46항). 성음악 지침이 제시한 단계를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계(★★★), 2단계(★★★), 3단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식 요소	노래 등급(3단계)	성격
시작 예식	입당 노래 (입당송)	★	행렬
	성호경, 인사	★★★	대화
	자비송	★★	청원
	대영광송	★★	찬미
	본기도	★★★	독경
말씀 전례	독서	☆	독경
	화답송	★	화답
	복음환호송	★	환호/행렬
	복음 전 대화구	★★★	대화
	복음 후 환호	★★★	환호
	복음	☆	독경
	신경	★★	독경
	신자들의 기도	★★	청원
성찬 전례	예물 기도	★★★	독경
	감사송 전 대화구	★★★	대화
	감사송	★★★	독경
	거룩하시도다	★★★	환호
	마침 영광송	★★★	환호
	주님의 기도	★★★	독경
	평화의 인사	★★★	대화
	하느님의 어린양	★★	청원
	영성체 노래 (영성체송)	★	행렬
	영성체 후 기도	★★★	독경
마침 예식	파견	★★★	대화

3.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노래 미사의 단계별 적용법은 사실 1967년 예부성성 성음악 훈령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어서 오늘날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 규범의 정신과 제주 교구의 현실 둘 다를 고려한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대화와 환호

노래할 부분을 고를 때에는 “특히 사제나 독서자가 부르고 교우들이 화답하는 노래, 또는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먼저 고릅니다 (총지침 40). 사제의 인사와 회중의 응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독서자와 회중의 응답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례 대화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미사가 공동체의 거행임을 밖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제와 교우들의 일치를 이루고 굳건하게”하기 때문입니다 (총지침 34). 사제, 부제, 독서자와 함께 모인 신자들 사이의 대화구는 그 성격상 짧고 단순하여 전체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미사 전례에서 환호는 전체 회중이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위업에 대해 드리는 우렁찬 긍정의 표현입니다. 미사 전례의 환호에는 **복음환호송**, **거룩하시도다**, **기념환호(신앙의 신비여)**, **감사 기도의 마침영광송** 등이 있습니다. 이 전례문들은 평일 미사나 소규모 공동체 미사에서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은 반주가 없을 때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화와 환호의 가락을 잘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행렬 노래

입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견 때 부르는 노래는 신자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우들, 또는 교우들을 대표하는 이들의 행렬을 동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전례 행위에 어울리는 노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입당 노래와 영성체 노래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두 노래는 하느님 백성이 미사를 봉헌하려고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러 거룩한 제단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로, 교우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행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입당 노래와 영성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 미사 경본에 수록된 입당송과 영성체송을 낭송합니다.

봉헌 노래와 파견 노래도 각각 미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사 경본에 따로 수록된 전례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래로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③ 화답 시편

화답 시편은 가능한 때라면 언제나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의 말씀 전례에서 화답송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례적으로도 사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총지침 61).

④ 후렴이나 반복 응답구

미사 전례에는 탄원(litania)의 성격을 띤 전례문도 있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송과 하느님의 어린양, 신자들의 기도 응답 등이 있습니다.

⑤ 찬미 노래

미사 전례에서 찬미 노래는 **대영광송**, 『로마 미사 경본』과 『로마 미사 성가집』에 수록된 몇몇 노래들, 총지침 48, 74, 87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합법적인 권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공동체 성가 등이 있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평일 미사에서는 가급적 대화와 환호, 행렬 노래들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쉬운 곡조로 된 화답송도 노래로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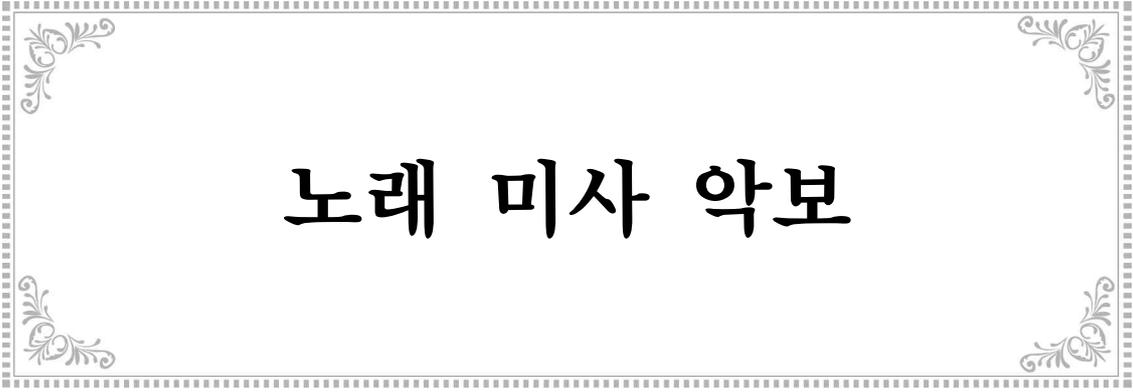
일 미사에서는 탄원 노래(자비송, 하느님의 어린양)와 화답송, 찬미 노래(대영광송)까지 노래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신비를 기념하는 다른 대축일에는 다른 일부 전례문도 노래로 드릴 수 있습니다. 파스카 성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같이 더욱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에서는, 주례 사제와 다른 전례 봉사자들, 신자 회중 전체가 잘 준비되었다면, 모든 전례문을 노래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 각 부분의 기능과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그 의미가 백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선율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현실적인 여건에 반하여 독서와 복음을 무리하게 노래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안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미사 ★★★ 주일 미사
★★ 대축일 (선택) ★ 대축일 (장엄 선택) ☆ 적절하다면

예식 요소	노래 등급	성격	목적과 시점 (괄호 안은 중지침 번호)
시작 예식			
입당 노래	★★★★	행렬	일치를 굳건히 하고 전례 시기 또는 그 날 전례의 성격을 드러낸다. 봉사자들이 행렬을 출발하기 직전에 시작한다. 봉사자들이 제대에 도착하여 제 자리에 서거나 분향을 마칠 때까지 부른다. (47-49)
성호경, 인사	★★★★★	대화	사제와 회중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를 드러낸다. (50)
(참회 예식)	★★☆	탄원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식하며 기도한다. 노래를 하기 전에 잠시 침묵한다. (51-52)
(자비송)	★★☆		
(성수 예식)	★★★	행렬	(주일, 특히 부활 시기 주일에 할 수 있다.) 세례의 은총을 기억한다. 사제가 성수를 뿌릴 때 노래를 시작하여 제단으로 되돌아오면 마친다. (51)
(대영광송)	★★★	찬미	(대림과 사순 시기를 제외한 주일과 대축일에)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 찬양을 드린다. (53)
본기도	★★	독경	그 미사의 성격을 드러내며 기도한다. (54)

말씀 전례			
첫째 독서	★	독경	구약의 말씀을 선포/묵상한다. (59)
독서 후 환호	★★★★★	환호	
화답송	★★★★	화답	구약의 노래에 담긴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독서 후 화답송 시작 전에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61)
(둘째 독서)	★	독경	사도들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듣는다. (59)
복음환호송	★★★★★	환호 행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환호한다. 주례자가 일어서면 시작하여, 복음집 행렬 동안 충분히 부른 다음, 주례자가 독서대에 다다를 때 마친다. (62-64)
복음 전 대화구	★★	대화	회중이 복음을 귀 기울여 듣도록 일깨운다. (60)
복음	★	독경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선포하고 듣는다. (60)
복음 후 환호	★★★★★	환호	
(신경)	☆	독경	(주일과 대축일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67-68)
신자들의 기도	★☆	탄원	교회, 세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69-71)
성찬 전례			
(봉헌 노래)	★★★★	행렬	백성과 그들이 가져온 예물, 전례 시기와 그 미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74-76)
예물 기도	★★	독경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스도께서 바치실 예물을 두고 기도한다. (77)
감사송 전 대화구	★★	대화	회중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일깨운다. (78-79)
감사송	★★	독경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린다. (78-79)
거룩하시도다	★★★★★	환호	천상의 찬양에 일치하여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다. (78-79)
감사 기도	★★	독경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업을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드린다. 예수님의 공생활, 죽음, 부활, 승천을 기념한다. (2)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성령을 청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청한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성령과 함께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영광을 드린다. (78-79)
신앙의 신비여	★★★★★	환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선포한다. (78-79)
마침 영광송	★★★★★	환호	감사 기도 전체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드린다. (78-79)

주님의 기도	★★★	독경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부께 기도한다. (81)
평화의 인사	★★	대화	회중이 평화와 일치를 이루도록 일깨운다. (82)
하느님의 어린양	★★★★☆	청원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신 분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주례자가 빵을 쪼갤 때 시작한다. (83)
영성체 노래	★★★★★	행렬	우리의 기쁨과 일치를 표현한다. 전례시기와 그 미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사제가 성체를 모시면서 시작해서 마지막 신자가 성체를 영할 때 마친다. (86-87)
(찬양 노래)	★★★	찬미	(침묵 기도 다음에 부를 수 있다.) 성령과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께 찬양을 드린다. (88)
영성체 후 기도	★★	독경	방금 거행한 신비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다. (89)
마침 예식			
강복과 파견	★★	대화	회중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일깨운다. (90)
(마침 노래)	★★★★★	행렬	이 세상에서 수행할 우리의 사명을 표현한다. 전례 시기나 그 미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파견사 바로 다음에 시작해서 봉사자들이 제단에서 완전히 물러가면 마친다. (성음악 훈령 36)



노래 미사 악보

노래로 드리는 미사

Missa in cantu gregoriano

일러두기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 로마 미사 경본 - 음원’에서 그레고리오 선율에 따른 노래 미사의 악보와 실제 부르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 가운데 일부를 제주교구의 전례 상황에 맞춰 발췌 수록하였습니다.
3. 복음 선포 후 환호와 응답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의 경우 신자들이 부르기에 좀 더 편리한 다른 가락을 사용합니다.
4. 감사 기도의 마침 영광송과 환호의 경우 제주 교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락을 계속 사용합니다.
5. 원음이 높아서 집전자와 회중이 부르기에 너무 어려울 경우 상황에 맞게 음을 낮추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6. 노래 미사의 단계별 적용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6항에 나와 있으나, 본당 실정에 맞게 바꾸어 사용합니다.

시작예식

성호경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인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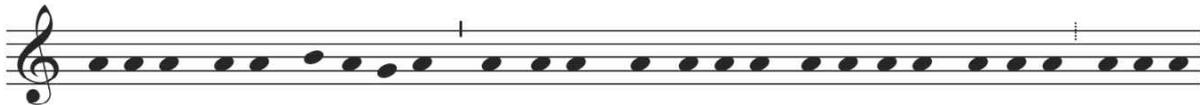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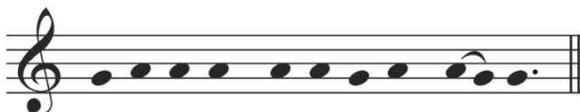


✦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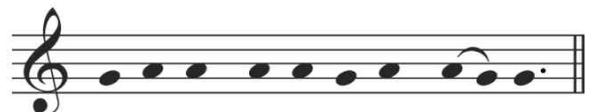
㉢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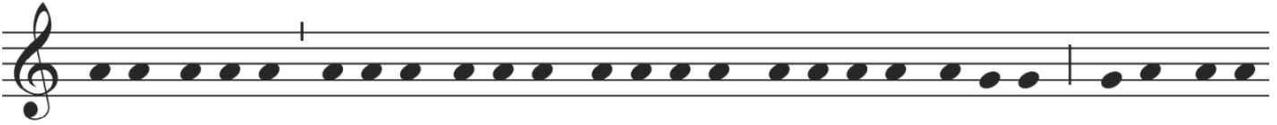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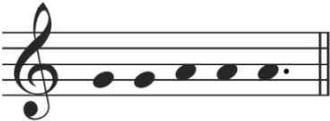
또는

✦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가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잠시 침묵한 다음 함께 죄를 고백한다.

✦ 전능하신 하느님과

◎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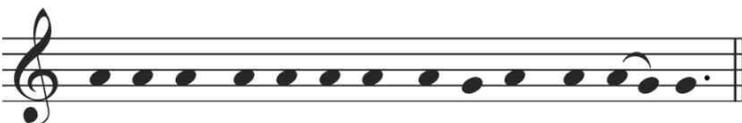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사제는 사죄경을 외운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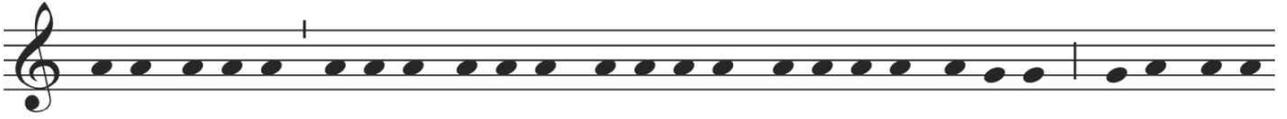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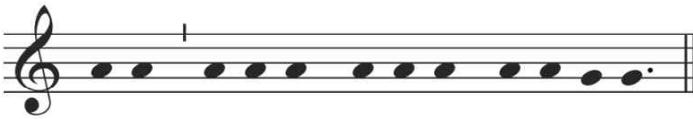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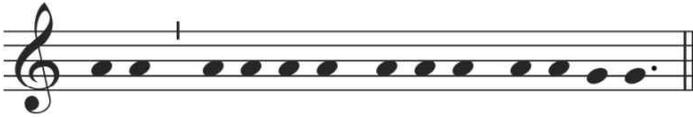
잠시 침묵한 다음 사제는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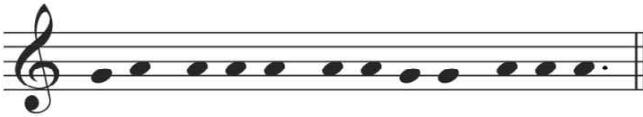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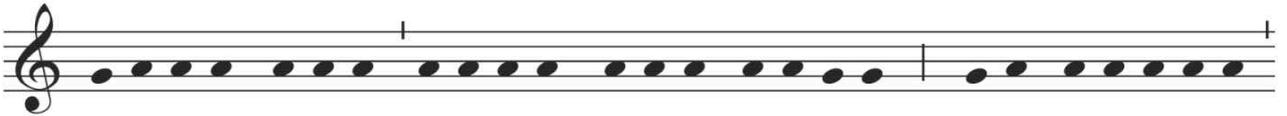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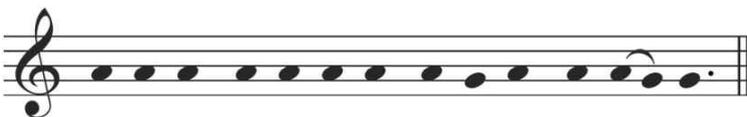


◎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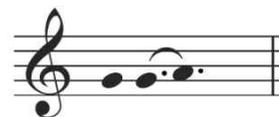
사제는 사죄경을 외운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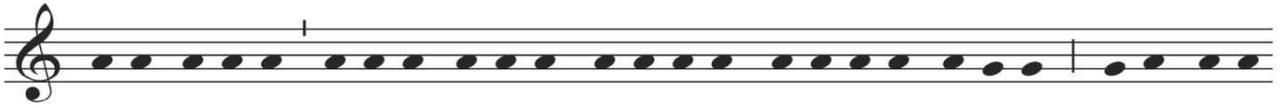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1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침묵한 다음, 사제나 부제가 자비송과 함께 청원기도를 드린다.
이 청원기도는 그날의 전례나 축일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반성합시다



✦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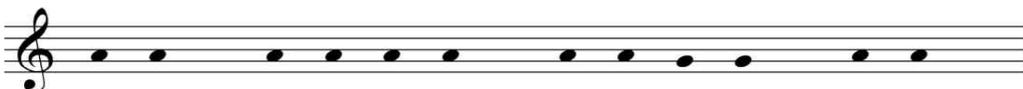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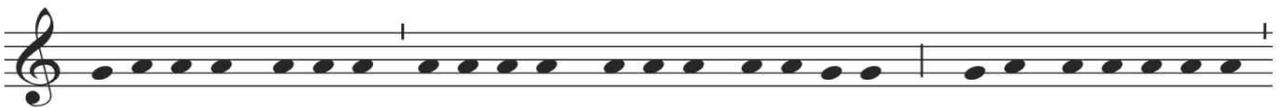


✦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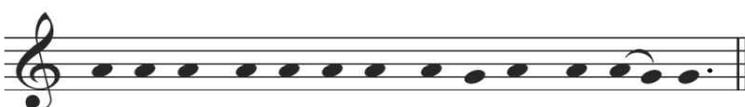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제는 사죄경을 외운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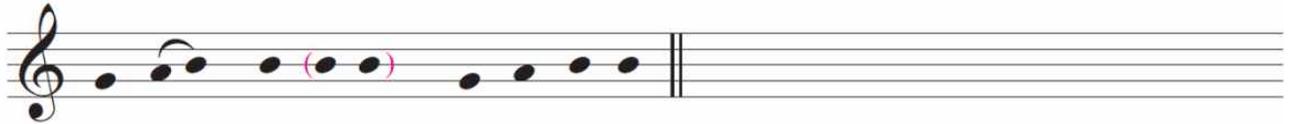
자비송



✦ 주 님 - 자 비 를 배 푸 소 서 ⊙ 주 님 - 자 비 를 배 푸 소 서
 Ký-ri- e e- lé- i- son. Ký-ri- e e- lé- i- son.



✦ 그 리 스 도 - 님 자 비 를 배 푸 소 서 ⊙ 그 리 스 도 - 님 자 비 를 배 푸 소 서
 Chri- ste e- lé- i- son. Chri- ste e- lé- i- son.



✦ 주 님 - 자 비 를 배 푸 소 서
 Ký-ri- e e- lé- i-son.



⊙ 주 님 - 자 비 를 배 푸 소 서 또는 주 님 - 자 비 를 배 푸 - 소 서 - - - - -
 Ký-ri- e e- lé- i-son. Ký-ri- e e- lé- i-son.

Kyriale XV

대영광송

Gloria

그레고리오 성가
 새가톨릭성가편찬위원회 편곡

IV 선법



하 늘 - 높 은 데 서 는 하 느 님 께 영 광



땅 에 서 는 주 님 께 서 사 랑 하 시 는 사 람 들 에 게 평 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



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기록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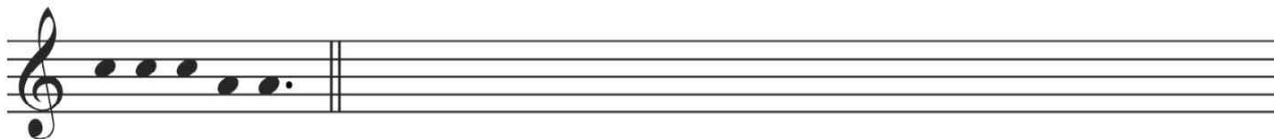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 - - 이 - 다 아 - - - - 멘 -

본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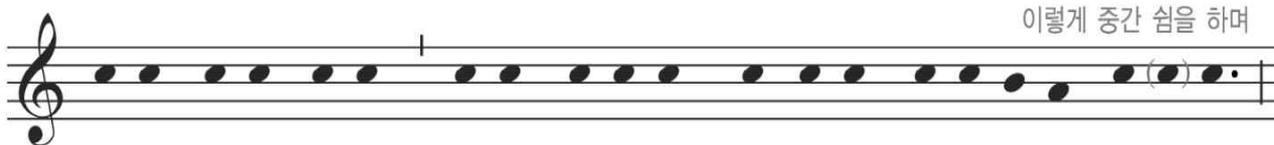
단순 곡조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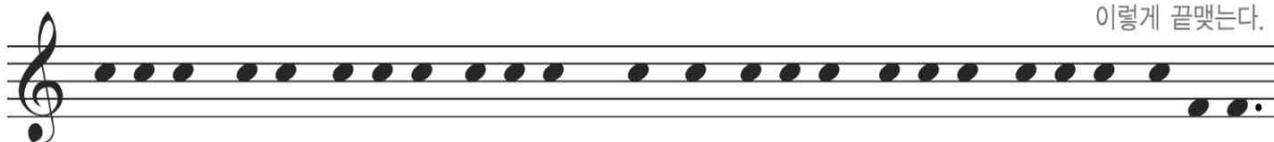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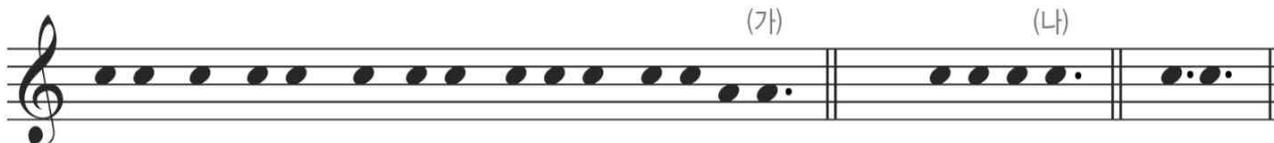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 아멘

말씀전례

제1독서

제2독서(혹은 복음 전의 독서)¹⁾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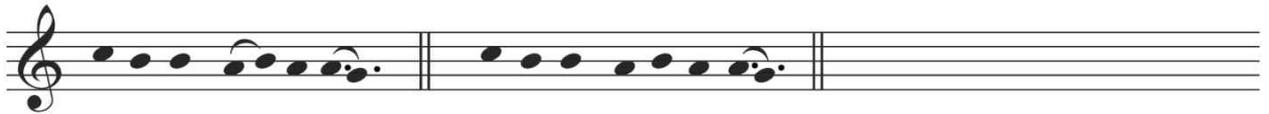
성찬전례

감사송

단순곡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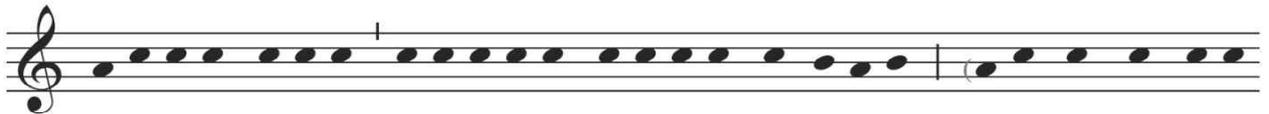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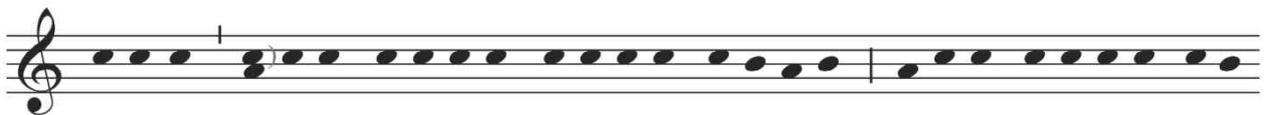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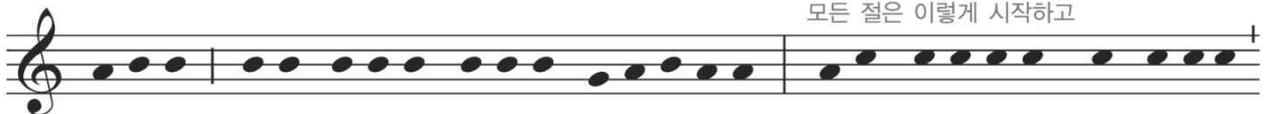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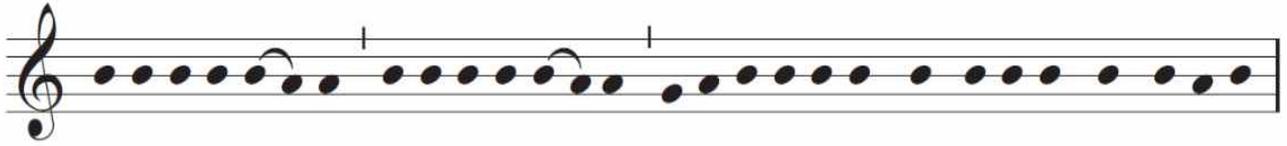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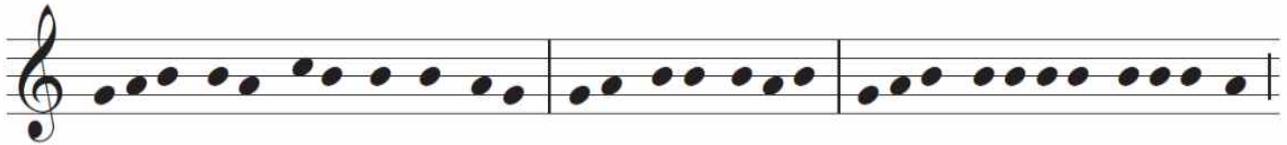


이렇게 중간 쉬을 하며 이런 중간 쉬은 반복할 수 있고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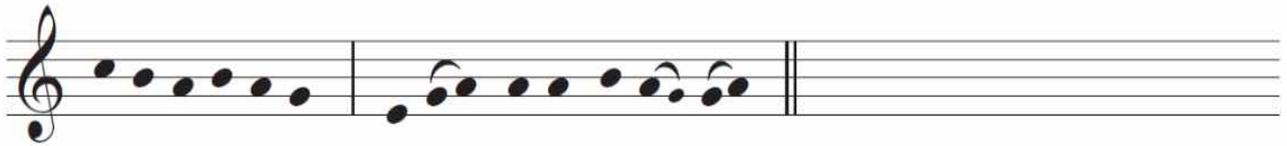
거룩하시도다



◎ 거룩하시도 - 다 거룩하시도 - 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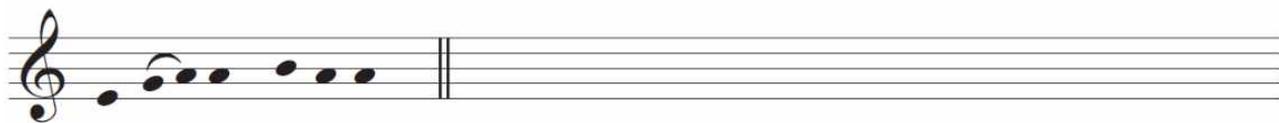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 데서 호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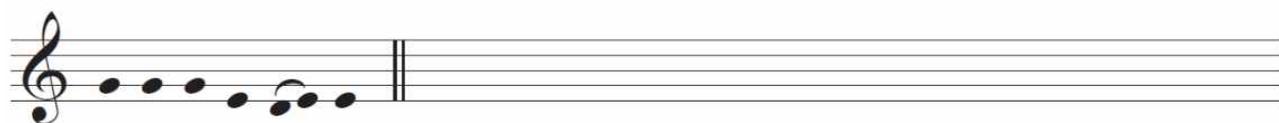
신앙의 신비여 단순곡조



+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 를 통 하 여 그리스도 와 함 께 그리스도 - 안 - 에 서



성 령 으 로 하 나 되 어 전 능 하 신 천 주 - 성 -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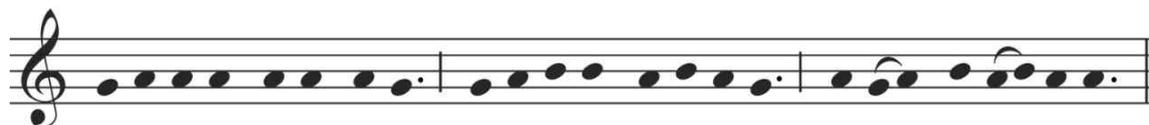
모 든 - 영 - 예 와 영 - 광 을 영 원 히 받 으 소 서



아 멘 아 멘 아 멘

영성체 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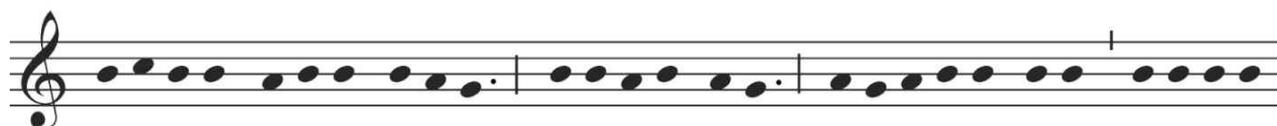
주님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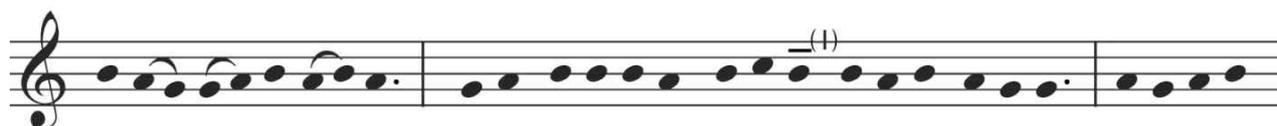
✦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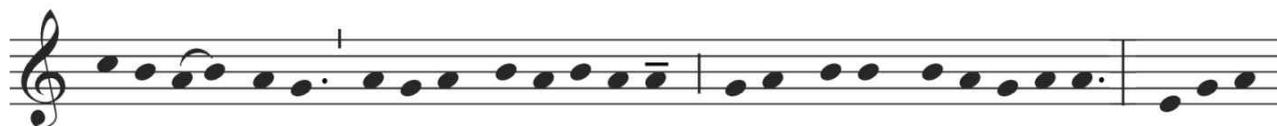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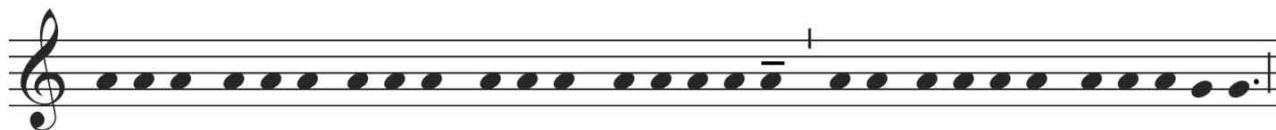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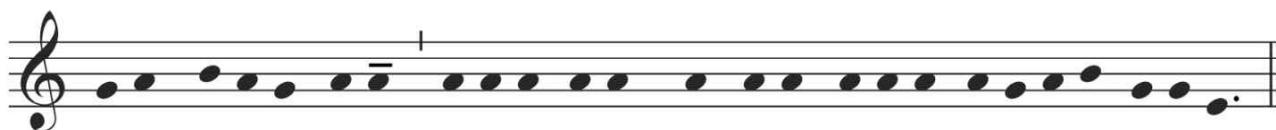
주님의 기도 후



✝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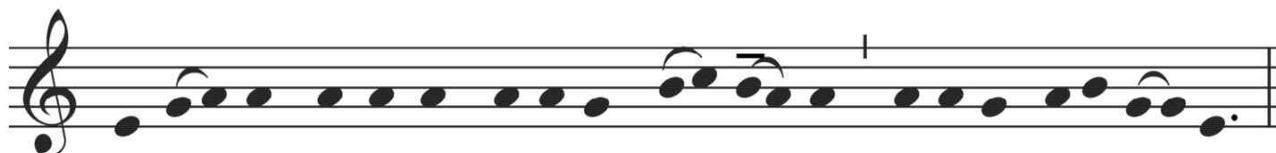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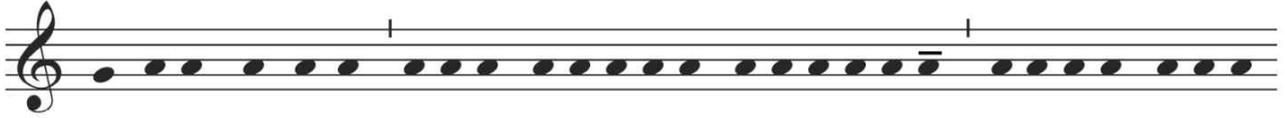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후 환호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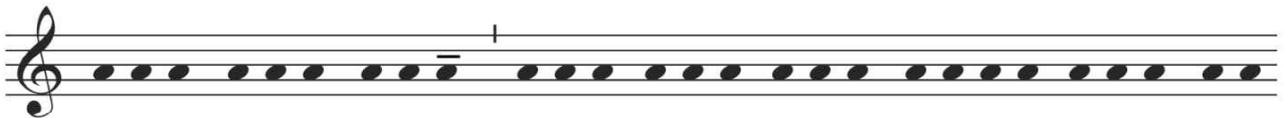
평화 예식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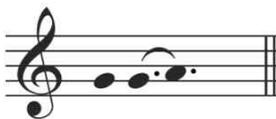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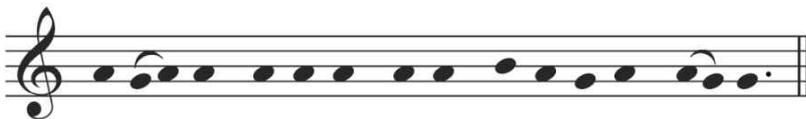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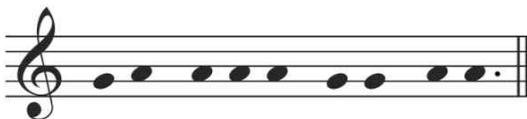


◎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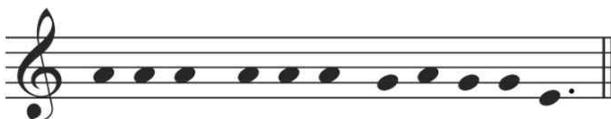
평화의 인사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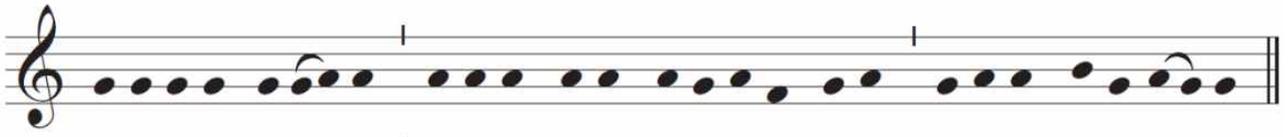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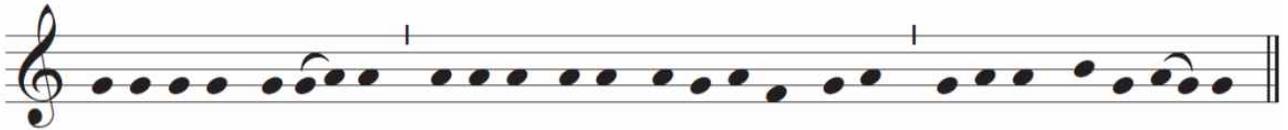


✦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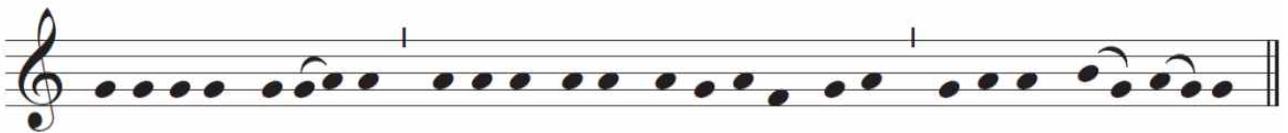
하느님의 어린양



⊙ 하느님의 어린-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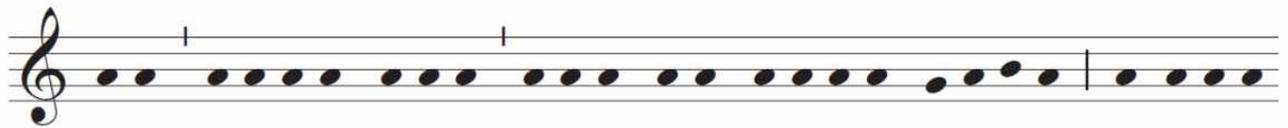


하느님의 어린-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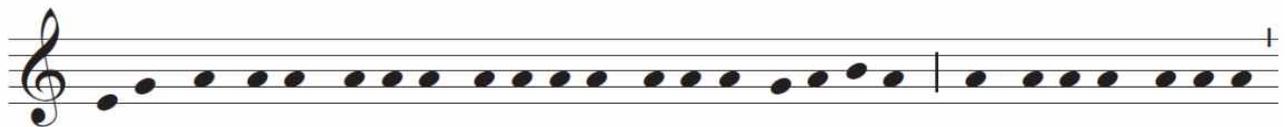
영성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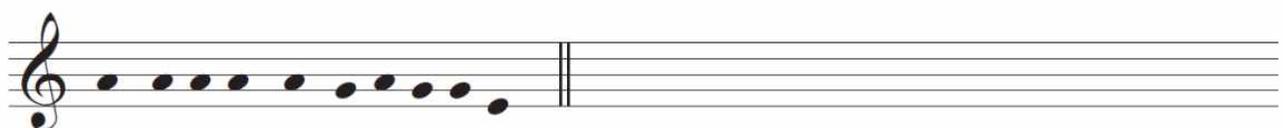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